

만성 물 부족 속초시, 물자립도시로 거듭난다

지하에 댐 만들어 취수원 사용
을 연말 완공, 저수량 60만 톤
내년부터 식수난 해결 기대

만성적인 물 부족으로 시민들이 불편
을 겪던 속초시가 2022년이면 ‘물 자립
도시’로 거듭난다.

속초시는 농어촌공사의 고도화된 특
수건설기법으로 지하에 댐을 만들어 취
수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식수난을
해결하게 되는 것이다.

그동안 속초시는 취수원인 쌍천이 유
로연장이 짧고 경사가 급한 지형적 특
성을 가지고 있어 갈수기 상수원 부족
으로 제한급수를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
불편이 많았다. 최근에는 서울양양고속
도로가 개통되면서 외부 방문객이 늘면
서 물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해 졌다.



김철수 속초시장(왼쪽)이 준공을 앞둔 지하댐 공사현장을 방문해 박현묵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
사장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.

속초시에 자리한 농어촌공사 영북지
사는 이 같은 속초시의 물 부족 문제를
해결해 주기 위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

지하댐 건설을 제의했으며, 김철수 속
초시장(오른쪽)이 수용하면서 문제해결의 실마
리를 찾았다. 박현묵 영북지사장은 “지

하댐은 땅속 지하수 통로에 콘크리트
벽을 세워 물을 가둔 뒤 집수정을 통해
물을 취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몰피
해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”
고 설명했다.

오는 12월 완공 예정인 지하댐은 국·
도비 포함 총 사업비 280억원을 들여 길
이 1.1km, 깊이 7.7m, 저수용량 60만톤
규모로 조성됐으며, 사업이 완료되면 1
일 9000톤 가량의 추가 수원을 확보할
수 있게 된다.

김철수 속초시장은 “2022년까지 추
진되는 용수확보와 누수방지 등의 사
업이 완료되면 신규 수원으로 하루 2만
2000톤가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항구
적인 물 자립 도시가 완성된다”면서 “고
질적인 식수부족 문제를 해결해 물 걱정
없는 속초시가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속초=백종운 기자 baekjw@agrinet.co.kr